

EU, 석유 메이저 가격담합 조사

BP · Shell · Statoil, 집행위원회 조사 인정 ... 담합 여부 미확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석유 메이저들의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원유, 정유, 바이오연료 분야의 일부기업들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거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BP(British Petroleum)와 Shell(Royal/Dutch Shell), 노르웨이의 Statoil 등은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Statoil은 위원회가 노르웨이 정부 반독점기구와 함께 본사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인정했으며, BP와 Shell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 가격을 매일 고시하는 전문지 Platt's도 위원회가 5월14일 방문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석유기업들이 공모해 가격을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예비단계일 뿐이라며 관련기업들의 잘못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14>